

# ‘전주에서 맛보는 한식이야기’

한국전통문화전당, 4월 5~13일 한식 인문학 강좌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한식창의센터는 오는 4월 5~13일 인문학 관점에서 한식을 만나볼 수 있는 ‘전주에서 맛보는 한식이야기’를 진행한다.

전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특강은 음식문화에 관심이 높은 지역민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키고자 한식 관련 도서 발간, 방송 출연 등 인지도와 대중성 높은 명사를 초청, 한식 문화를 인문학 관점에서 재미있고 깊이 있게 풀어갈 예정이다.

먼저, 5일 박복담 한국전통문화연구소장의 ‘전통주와 문화’ 강연을 시작으로 6일은 박찬일 세프의 ‘우리 음식의 연대기’ 7일은 차연수 전북대학교 교수의 ‘코리아 패러독스’ 12일은 홍신애 요리연구가의 ‘우리 식탁 위의 김치 문화’ 마지막으로 13일에는 이육정 다큐멘터리

감독의 ‘인류를 매혹시킨 음식들과 한식의 가능성’ 등 떠오르는 한식 관심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평일 저녁 시간대에 운영되며, 한식에 대해 알고 싶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김도영 원장은 “시민들의 강좌 추가개설에 대한 지속적 문의와 요청이 많아 두 번째 특강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대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음식 관련 특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강 접수는 전주음식이야기 누리집(jonjufoodstory.or.kr)을 통해 13일부터 회차 별 80명까지 선착순으로 모집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음식이야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식창의센터 한식문화진흥팀(063-281-15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에서 맛보는 한식이야기’ 포스터

# ‘추억의 파노라마, 옛사랑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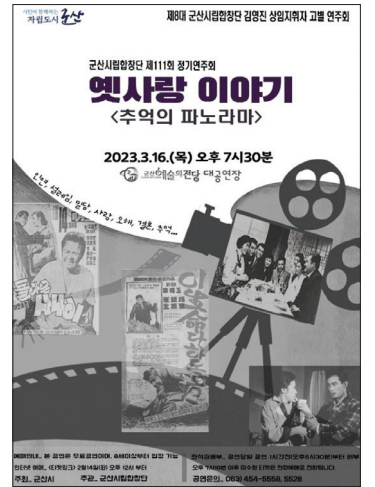
군산시립합창단 제111회 정기연주회 16일 군산예술의전당서 개최

군산시립합창단 제111회 정기연주회 ‘추억의 파노라마, 옛사랑이야기’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정기연주회는 연인 간의 사랑을 주제로 첫 만남부터 사랑의 결실을 이루기까지 사랑의 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그에 따라 변해가는 감정을 1950년~60년대 한국 고전 영화와 우리 가곡들로 선보일 예정이다.

‘첫사랑(김효근)’을 시작으로 ‘내 맘의 강물(이수인)’, ‘봄이 오면(홍난파)’, 등 10곡 이상의 다양한 가곡들로 청중들에게 감미로운 선율을 전달하고 기존 음악 공연들과는 다르게 영상과 음악이 결합하는 새로운 모습을 선사해 관객들의 눈과 귀가 즐거운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창단 관계자는 “올 한해 4번의 정기 및 기획공연을 포함하여 총 8번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시민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공연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연은 티켓링크로 사전예약 가능하며 공연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티켓을 배부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전석무료)하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도내 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 성료

콘텐츠 기획·마케팅 교육 등 진행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최근 실시한 도내 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빅데이터 시대의 SNS 콘텐츠 제작, 빅데이터 시대 여행 콘텐츠 변화와 흐름,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관광 현황 및 사례, 지역 관광 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도내 관광분야 종사자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총 2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전북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강사진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단 김현 관광사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도내 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최근 실시한 도내 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자료총서 제13·14권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이 자료총서 제13·14권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자료총서 13권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 색인 1 - 인명(상)’과 자료총서 14권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 색인 2 - 인명(하)’는 일제강점기에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한 여러 유교 단체의 기관지에 실린 인명

3만여 건을 추출해 수록한 색인집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유림 사회의 일각에서 일제에 협력하면서 유교 단체를 결성하고 기관지를 출판하는 행위와 이로써 재생산했던 유림 사회의 모습은 전통적인 유교문화가 근대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위 두 권의 자료 총서는 근대 한·중·일 유교 및 유교문화의 연구에 귀중한 연구자료로

서, 향후 학계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변주승 단장은 “앞으로도 자료 총서 시리즈를 통해 그동안 학계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한 근현대 유교문화를 재가공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라며 “연구단은 자료 총서가 근현대 유교문화를 탐색하는 통로가 되고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의 미래공동체를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바람, 새봄’ 신춘음악회 15일 개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북도립국악원 공동기획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라북도립국악원 관련 악단은 봄을 맞아 ‘2023 신춘음악회’를 공동기획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미래, 그 시작 ‘바람, 새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신춘음악회는 15일 오후 7시 30분 모악당에서 열린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쁨과 기대감을 전북도민과 함께 한

다는 의미를 담아 전석 무료 초대로 진행된다.

이날 무대는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김원선 교수가 지휘하고, 참극단 합단영, 박현영 단원이 사회를 맡아 작품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한편 ‘2023 신춘음악회’는 일곱 개의 곡목으로 구성, 무대의 변화와 감흥을 더했다.

/장은성 기자

# 군산시, 제9대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공개모집

군산시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군산시립합창단을 이끌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지휘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시는 제9대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공고하고, 공고기간 중인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자격은 국내·외 4년제 음악관련 전공학과 졸업자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지휘(합창) 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공립 시립합창단 지휘(객원지휘포함) 경력이 있어야 한다.

상임지휘자 공개 채용은 1차 서류전형, 2차 실

기(리허설)전형, 3차 공연 지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6월 중 최종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현연 예술의전당 관리과장은 “객관적인 상임지휘자 선정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중립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발전과 수준높은 공연문화 창출에 기여할 예술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최적의 상임지휘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시원서는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관리과(063-454-5528)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